강 령

聖潔 · 希望 · 自由

성결신문

중생 · 성결 · 신유 · 재림

성결신문은 예수교대한성결교회의 기관지로서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언론을 지향합니다. 1907년부터 이어온 성결교회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내외 성결가족들의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개인 신앙성장과 교단부흥을 선도하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http://www.sknews.org / 대표전화 : 070-7132-0091~5 SUNGKYUL NEWS 2025년 7월 22일 화요일 제612호

‘선한 영향력 행사하는 남전련 회원의 삶’ 다짐

남전도회전국연합회 제38회 하계수련회… 내실있는 진행, 위상 높여

남전도회전국연합회(회장 이장호 장로) 제38회 하계수련회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충청남도 천안상록리조트에서 개최됐다.

‘성령의 권능으로 항상 기뻐하라’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수련회는 충청지역을 비롯한 중부지방의 큰 장마비로 당초 예상 인원을 크게 밑돌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13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해 은혜를 나눴다.

개회예배는 회장 이장호 장로의 사회로 열린 가운데 노재억 장로의 기도와 나경하 장로의 성경봉독 후, 총회장 홍사진 목사가 ‘힘써 대장부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홍 총회장은 “말씀 앞에 용기있게 순종하는 삶은 형통하는 삶이다.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서 형통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란다”고 설교했다.

이어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총회와 지교회, 남전도회 부흥을 위해 이광섭 박상길 이천 장로가 나서서 각각 기도했다.

수석부회장 차천용 장로의 사회로 시작된 환영 및 축하의 시간에는 부총회장 이종만 목사, 성결대학교 총장 정희석 장로, 두란노교회 이상문 목사, 주님앞에제일교회 노윤식 목사, 한국평신도단체협의회 회장 배영진 장로, 기성남전도회전국연합회 회장 민태경 장로, 여전도회전국연합회 회장 이혜경 권사가 격려사와 축사를 전했다. 교단총무 권순달 목사도 축사와 함께 교단 경과보고의 시간을 가졌다. 고문 차춘현 장로의 폐회기도로 순서를 마쳤다.

오후시간에 진행된 세미나는 남전도부장 강명국 목사가 ‘1907년 평양장대현교회 남자사경회 이야기’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인도했다. 강명국 목사는 “평양장대현교회에서 초교파로 열린 연합사경회는 부흥운동의 시발점이며 한국의 오순절로 기록된다”며 “남전련이 본연의 책무인 전도와 복음 증거에 힘쓰는 기관으로 굳게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두 번째 세미나는 심리상담학자 이병준 박사가 강사로 나서서 열띤 강의를 이어갔다. 이병준 박사는 ‘남은 인생, 남는 인생 만들기’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통해 남전련의 발전을 기원했다.

익일 아침예배는 비산동교회 성태동 목사가 ‘교회의 사도성’이라는 제하의 설교를 통해 “바른 신앙인의 자세와 남전도회원으로서의 전도의 사명”에 대해 말씀을 전했다.

이날 남전도부장 강명국 목사는 환영사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영적 교제를 통해 서로를 격려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인사했다.

회장 이장호 장로도 “주님만 바라보며 심령과 육신의 강건함을 재충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3차 임원회의 갖고 상정된 안건 처리

산하기관 이사 및 감사 추천 등의 안건 다뤄

104회기 제3차 임원회의가 지난 17일 성결대학교 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9명의 임원 전원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학교법인 성결신학원 이사 추천의 건이 상정되었다. 안성중앙교회 송용현 목사를 추천 실행위원회에 인준을 요청키로 하였다.

△유지재단 이사 및 감사 추천의 건도 상정되어 초임인 김규식 송영만 목사, 김재홍 이광섭 황제돈 장로를 연임키로 하였으며 이규현 목사, 장영만 장로를 각각 초임이사로 추천키로 하였다. 또한 이상복 목사와 정 헌 장로는 감사로 추천하여 인준을 요청키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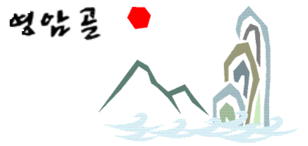
△은급재단 이사 및 감사 추천의 건도 다뤄졌다. 초임인 김성은 목사와 정태관 장로를 연임키로했으며 감사는 삶을변화시키는교회 허상범 목사를 추천하여 실행위원회에 인준 요청키로 하였다.

△이단대책위원회가 상정한 건의안에 대해서 다뤄졌다. 총회임원 입후보자, 목사안수대상자, 신학교수들에게 동성애 반대 서명을 받자는 건으로 이날 임원들은 “현장과 선관위 내규 등을 수정해야할 사항이며 보수신앙을 견지해온 성결교단인 만큼 모두 다 반대할 것이다. 강제조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하자”는 의견에 따라 이같이 결정키로 했다.

이밖에도 한국교회이단대책위원장협의회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집단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총회가 인정해 결의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이에 대해 “교단내 신학적 검증도 없이 정책 이슈만으로 이단으로 규정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며 불허키로하였다.

▷2면에 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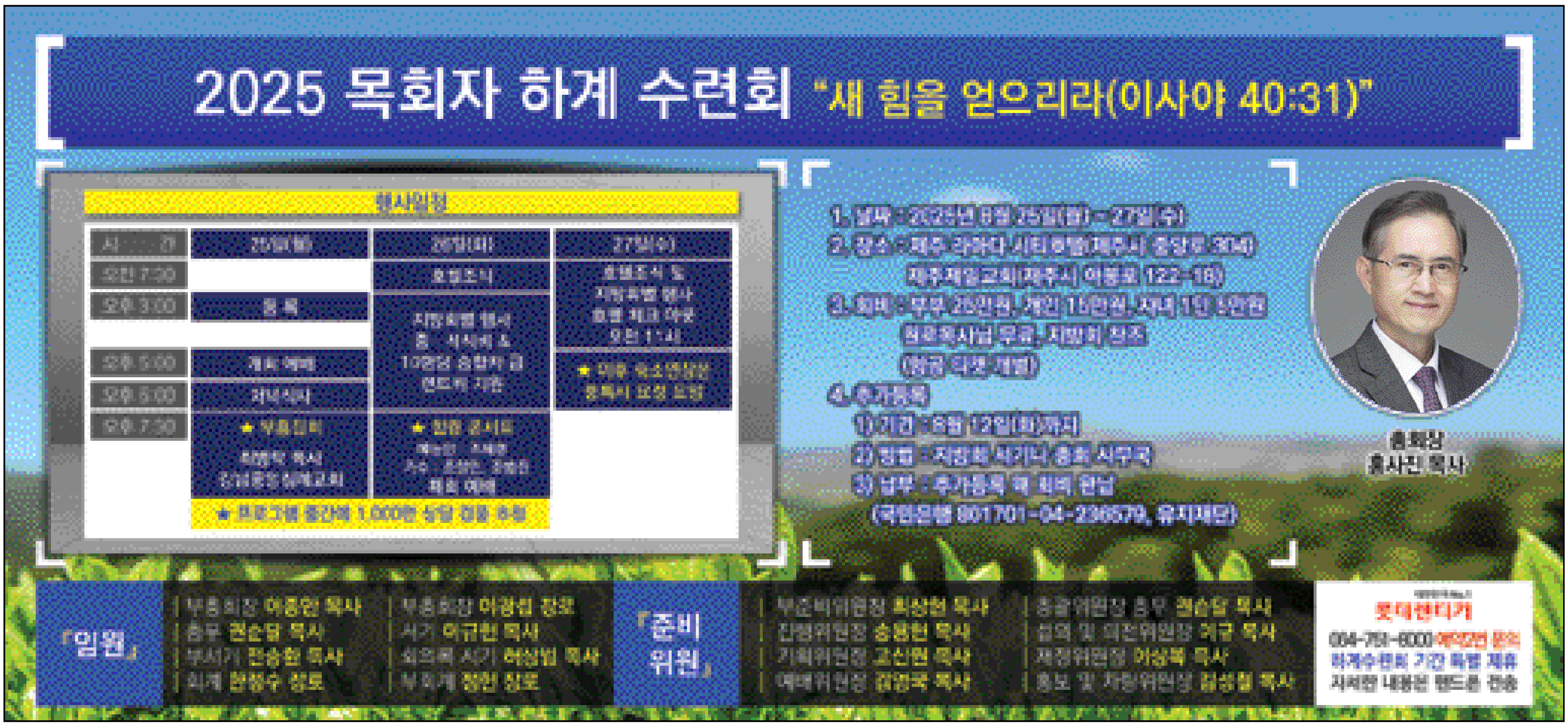


삼복(三伏) 더위에

삼복 더위는 대개 7월 중순경부터 8월 중순까지 이어지는 여름철 가장 더운 시기를 말한다. 서양에서는 이 시기를 Dog Days(도그 데이스)라 한다. 삼복 더위의 위세는 굳고 단단한 소뿔도 녹아내린다 하여 옛말에 ‘삼복 더위에 소뿔도 꼬부리든다’고 했다. 찰떡처럼 달라붙는 끈적끈적한 습기, 숨 막힐듯한 작렬하는 태양열, 잠들지 못하게 하는 열대야, 게다가 장대비, 폭우, 야멸찬 태풍과 범람, 홍수 등. 박두진은 시 ‘7월의 편지’에서 “7월의 태양에서는 사자 새끼 냄새가 난다”고 했는데,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요즈음 삼복더위는 사자 새끼 정도가 아니라 새끼 잃은 어미 사자처럼 사납다.

그런데 여름은 또 다른 얼굴이 있다. 누렇게 익은 보리 이삭에 밭둑은 기름짐이 넘실거리고, 무리진 개망초, 백날을 피고지는 백일홍, 달이 좋아 저녁에 피었다 아침에 지는 밤의 요정 달맞이꽃. 수국, 석류꽃, 나팔꽃, 섬초롱, 그 향기가 100리를 간다는 하얗게 피었다 노랗게 지는 치자꽃 향기, 그리고 여름 끝자락에 나오는 코스모스. 가히 7-8월의 벌판은 찬란하다. 어디 그뿐인가? 여물어 단맛 도는 옥수수. 포도 알갱이는 알알이 들어와 굵어지고, 노란 참외, 자두, 살구, 복숭아, 수박은 더위에 기력 떨어진 이들에게 여름이 주는 선물이다.

또 미역냉국, 된장 풀어 끓인 아욱국은 입맛을 돋우고, 햇감자 삶아 아삭 열무김치 한입 물면 고추는 벌써 빨갛게 익어간다. 게으른 상추밭은 하마 쇠어서 장다리가 섰지만, 그늘 밑에 앉아 뿌연 국물 삼계탕 한 그릇 비우면 더위는 물러가고, 녹음 짙은 숲속 어디선가에서는 딱따구리가 ‘딱 따다닥’ 지루하고 무더운 여름날의 적막을 깨며 가을 오기를 재촉한다. 게다가 비 그친 구름 사이로 떠 오른 무지개는 펴 붙던 여름이 물러가는 신호 아닌가? 된 여름은 그렇게 두 얼굴로 나타나 우리 곁을 맴돌다 떠나갈 것이다.

복(伏)은 엎드린다는 뜻이 있다. 당분간 삼복더위가 핏대를 올리며 달려들겠지만, 세 번(초복, 중복, 말복) 엎드려 기다리면 더위가 물러갈 것이다. 엘리야는 갈멜산 뙤약볕 아래 엎드려 가뭄든 땅에 단비를 불러왔다(왕상 18:42-45). 그러니 우리도 올여름 엘리야를 배워 납작 엎드리자. 어디 더위뿐이겠는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던 모든 무더위(문제)도 해결될 듯싶다.

淸水 ehc3s@hanmail.net